

한문 정답

1	⑤	2	⑤	3	④	4	①	5	⑤
6	③	7	④	8	③	9	②	10	①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④
16	③	17	④	18	①	19	④	20	②
21	②	22	④	23	①	24	⑤	25	②
26	②	27	⑤	28	③	29	①	30	①

해설

1.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을 통해 형 알기

제시된 ‘禾’는 벼대[木]에 한 획[ノ:이삭]이 패어 드리워진 모양]을 더해 ‘벼’를 뜻하는 자이다.

2. [출제의도] 한자의 짜임을 통해 음 알기

제시된 두 한자는 ‘뜻 부분’과 ‘음 부분’이 합하여 이루어진 형성자로, 독음이 본음과 달라지는 글자들이다. ‘水(뜻:수)+可(음:가)=河(하) 물’, ‘木(뜻:나무)+各(음:각)=格(격) 격식’

3. [출제의도] 사전에서 한자 찾기

제시된 조건에서 ‘煙’의 음은 ‘연’이고, ‘炭’의 부수는 ‘火’이며, ‘爲’의 총획은 12획이다.

4.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오래 산다’는 뜻을 가진 한자는 ‘壽’이다.

5.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제시된 표어는 ‘한적한 길이라 하여 과속하지 말고, 교통 경찰관의 단속이 없다하여 음주하지 말라.’이다. 과속(過速), 음주(飲酒)

6. [출제의도]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7.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과 뜻을 알고 쓰기

‘역사’라는 3개의 동음이의어를 구별하는 문항이다. ㉠은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 ㉡은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 과정의 기록, ㉢은 역으로 쓰는 건물을 의미한다.

8. [출제의도] 한자어의 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제시된 그림은 빛의 굴절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 굴절: 빛이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경계면에서 그 진행 방향이 휘어서 꺾이는 현상.

9.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약도에 나타난 장소명의 한자 표기를 묻는 문항이다.

10.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 알기

십자말풀이에서 문맥에 맞는 한자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11.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제시된 지문은 ‘달리 변통할 줄 모르고 어리석게 한 가지 만을 내내 고집함’을 뜻하는 ‘守株(守株待兔)’와 통하는 글이다. ① 모순: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음

12.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하기

제시된 그림에서 ‘애서(愛書)’는 ‘책을 사랑한다.’는 뜻이니, ‘손안 애서’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 글을 읽음’을 이르는 ‘手不釋卷(수불석권)’을 이미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성어의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제시된 만화는 ‘매번 만원 버스에서 고생하던 한 여학생이 모처럼 빈 좌석에 앉았는데 하필 옷에 끈이 붙어 낭패를 당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늘 일이 안 되는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만났으나 역시 잘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 ‘계란유골’과 상통한다.

14. [출제의도] 격언의 속뜻 알기

차라리 닭 주둥이가 될지언정 쇠꼬리가 되지 말라.

제시된 지문은 ‘높은 사람 꿩무니를 쫓아다니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낮은 데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15. [출제의도] 명언구의 속뜻 알기

무릇 귀한 신분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지위가 바뀌면 (천해지고), 부유함을 복으로 삼는 사람은 재물이 다하면 가난해진다.

제시된 지문은 앞뒤 문장이 대우로 이루어졌다. 앞 문장은 ‘貴’와 ‘賤’이, 뒤 문장은 ‘富’와 ‘貧’이 서로 상대자로 이루어져 있다.

16. [출제의도] 선인의 삶을 알고 가치관 형성하기

머리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 쓰고, 몸을 씻은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다.

이 글은 자아의 깨끗함이 세계에 더럽혀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굴원이 어부와의 문답형식을 빌려 고결한 자아가 타락한 세속과는 타협할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17. [출제의도] 속담의 속뜻 알기

문자 메시지는 ‘고생하던 사람에게도 행복이 오는 날이 있다.’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부귀와 빈천은 돌고 돈다.’라는 뜻을 가진 ④와 상통한다.

18. [출제의도] 격언의 속뜻 알기

○ 높은 누대도 흠을 쌓는 데에서 시작된다.
○ 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말은 뺄으면 다시 거두기 어렵다.

첫 문장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는 뜻이며, 둘째 문장은 ‘일이 한번 잘못되어버린 뒤에는 수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시작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이다. ① 작사모시: 일을 시작할 때에는 첫출발을 잘해야 한다.

19.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 파악하기

문기를 ‘꿈속에 꽃이 지고, 거울이 깨지니 이것은 곧 무슨 징조인가?’ 답하기를 ‘꽃이 졌다면 결국 열매가 맺힐 것이고, 거울이 깨졌으니 어찌 소리가 없겠는가?’

이 글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의 꿈에 대해 묻자 무학 대사가 이를 풀어준 내용이다.

[20 ~ 21]

궁성은 서울의 가운데에 있는데, 둘레가 1,813보이고, 높이가 21자 1치이다. 네 곳에 쥘문을 세우니, 남문을 ‘광화’라 하는데 옛날에는 ‘정문’이라고 불렀다. 북문을 ‘신무’, 동문을 ‘건춘’, 서문을 ‘영추’라 한다.

20. [출제의도]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하기

제시된 지문은 궁성의 규모와 쥘문에 관한 명칭을 기록한 글이다. 궁성의 둘레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0×1,813보=326,340cm≈3.26km

21. [출제의도] 한자어의 음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본문에 따르면 광화문의 명칭을 옛날에는 ‘정문’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22 ~ 23]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 담기지 않으면 시가 아니요, 시절을 아파하고 세속에 분노하는 뜻이 담기지 않으면 시가 아니요, 찬미와 풍자, 권선과 징약의 뜻이 담기지 않으면 시가 아니다. 그런 까닭으로 뜻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배움이 순수하지 못하며, 큰 도를 깨닫지 못하며, 임금을 바로 잡고 백성을

윤택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를 지을 수 없으니, 너는 부디 힘쓰도록 하여라.

22. [출제의도] 산문을 풀이하여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정약용이 귀양지에서 시인의 작가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의 내용이다.

23. [출제의도] 한자어의 짜임 알기

㉠의 짜임은 ‘큰 도’라는 뜻으로 <수식 관계>이다.

㉡ 여운: 뒤에 남은 운치(느낌) <수식 관계>

[24 ~ 25]

왕이 여러 처자들에게 문기를, “어느 꽃이 가장 좋은가?” 하니, 어떤 이는 “복숭아꽃”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모란꽃”이라고도 하여 대답이 똑같지 않았다. 정순왕후만이 남달리 “면화가 가장 좋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왕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다른 꽃은 한때 즐기는데 지나지 않으나 오직 면화만은 세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입히니, 추위를 막는 공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24. [출제의도] 문장의 형식을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을 풀이해 보면 “무슨 꽃이 가장 좋은가?”가 되어 의문형임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선인의 지혜를 알고 가치관 형성하기

정순왕후가 면화가 좋다고 대답한 심리적 배경에는 백성들의 추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26 ~ 28]

(가) 천 석들이 저 큰 종을 보게나,
큰 공이가 아니면 두드려도 소리가 없네.
만고에 우뚝한 천왕봉은,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네.
(나) 멀리 한산 돌 비탈길을 오르자니,
흰 구름 이는 곳에 인가가 보이네.
수레 멈추고 앉아 늦가을 단풍 숲을 감상하자니,
서리 맞은 잎이 봄꽃보다 더 붉구나.

26. [출제의도] 한시의 기초적인 형식과 특징 알기

(가)에서는 계절적인 배경을 알 수 없고, (나)에는 대우가 쓰이지 않았다.

27. [출제의도] 한시를 풀이하여 시적 분위기 파악하기

㉠에는 의연한 산을 닮고 싶은 시적 자아의 심경이 투영되어 있다.

28. [출제의도] 한시를 풀이하고 감상하기

(가)의 2구에는 선비의 출처(出處)에 대한 입장이 나타나 있다.

[29 ~ 30]

양자가 송나라로 가는 도중에 여관에서 묵게 되었다. 그 여관 주인에게는 첩이 두 명 있었는데, 하나는 예쁘고, 또 다른 하나는 못생겼다. 그런데 못생긴 첩은 귀대받고, 예쁜 첩은 천대받고 있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 여관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대답하기를, “예쁜 첩은 스스로 예쁘다고 뻔히 나는 그 첩이 예뻐 보이지 않고, 못생긴 첩은 스스로 못생겼다고 여겨 겸손하니 나는 그 첩이 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라고 했다. 양자가 말하기를, “제자들이야, 잘 기억해라. ……”라고 했다.

29. [출제의도] 허자의 쓰임을 알고 문장 독해에 활용하기

30. [출제의도]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 증진하기

원문의 생략된 말을 풀이해 보면 “행실이 아름다운데도 스스로 뽐내지 않는다면 어디 간들 사랑받지 않겠는가? (行實而去自賢之行, 安住而不愛哉)”이다.